

# 논문상 심사후기

문영현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본 학회에서는 매년 최근 2년간 전기학회 논문지 또는 영문지, 공동 영문지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논문대상 1편과 논문상 5편을 시상해 왔다. 이것은 학술 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매년 가을이면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수상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 구성한 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금년에는 본인이 심사위원장의 소임을 맡게되어 그간의 소감을 간단히 적어 보고자 한다.

금년도 논문상 심사는 2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첫번째 단계는 분야별 논문심사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분야별로 추천된 논문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분야별 심사는 해당분야 편집위원(2~3명)이 심사자가 되어 논문심사시에 추천된 논문과 공모에 응하여 자전 또는 타적으로 추천된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 2편을 선정하고 이것을 논문상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2단계 심사는 분야별로 추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논문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논문을 선정한다.

금년에는 분야별로 8개분야에서 논문 2편씩 추천되었고, 추천분야의 대표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공헌도를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논문 대상 후보로는 학술적 기여도가 국제수준에 손색이 없는 2편의 논문이 거론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서울대 서진현교수 연구팀의 논문 '완전 선형화 가능한 불확실성을 가지는 비선형 단일 입력 단일 출력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최근 제어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있는 비선형 궤환 선형화 (Non linear feedback linearization) 제어에 관한 것으로 비선형계의 강인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선형 궤환선형화 조건을 제시하였고 자기 부상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실용성을 보인바, 이는 국제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편 다른 한편의 논문은 한양대 서일홍 교수팀의 Q-learning에 관한 논문으로 이 역시 국제적 수준에 손색이 없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나 대상으로는 1편밖에 고를 수 없으므로 논문상으로 넘기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서일홍 교수는 금년 편집이사로 봉사하고 있으므로 일을 맡은 당사자로서 대상을 양보하는 미덕도 보여 주시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상논문이 결정될 수 있었음을 이 기회를 통하여 알려 드리하고자 하며 앞으로 서일홍 교수에게도 머지않은 미래에 영광이 돌아갈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논문상 결정은 나머지 논문 중에서 다섯 편을 선정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분야별 안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최우수로 추천된 논문이 논문상 후보를 거론되었고, 많은 토론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논문이 결정되었다. 선정된 논문은 모두 논문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는 우수한 논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애석하게 탈락된 논문도 있었으며 저자의 자질로 보아 다음 연재기는 수상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믿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본다.